

국별 리포트

# 필리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5.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1
V. 종합의견 .....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300천 Km <sup>2</sup>	G D P	1,605억 달러 (2009년)
인구	9,798만 명 (2009년)	1 인 당 GDP	1,638달러 (2009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 공화제	통화단위	Peso
대외정책	친서방 민주주의	환율 (달러당)	47.79 (2009년 평균)

- 필리핀은 1565년부터 스페인 및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며, 1943년에는 일본에 의해 점령을 당하기도 하였음. 1946년 7월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통령중심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
- 태평양에 둘러싸여 타이완섬과 보르네오섬, 셀레베스섬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동, 니켈, 임산자원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9,798만 명에 달하는 동남아 주요 국가임.
- 지역 및 계층간의 심한 소득격차, 정치권의 부정부패, 회교 반군과의 오랜 분쟁 등으로 정치, 사회의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음.
- 2010년 5월 10일 선거에서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세계 정치사에서 최초로 모자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필리핀에서는 9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경제성장률	5.0	5.3	7.1	3.8	0.9
재정수지 / GDP	-2.7	-1.0	-0.2	-0.9	-3.9
소비자물가상승률	7.7	6.2	2.8	9.3	3.3

자료: IMF, EIU.

#### □ 세계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세

- 필리핀 경제는 2004년부터 4년 연속 연 5%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특히 2007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 따른 소비수요의 증가, 정부지출 확대, GDP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높은 성장 등으로 인해 7.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8년 하반기부터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수요 감소,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 및 해외근로자 송금액 감소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2008년 경제성장률이 3.8%로 둔화되었음.
- 세계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9년 2/4분기부터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지속적인 유입,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국내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위축이 완화됨에 따라, 필리핀 경제는 2009년에 당초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서 벗어나 0.9%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 국내소비 감소 및 국제 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안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4년부터 3년간 평균 6~7%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07년에는 식료품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폐소화 강세로 인해 수입단가가 하락하면서 2.8%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08년 상반기 중에는 주요 식료품 가격 및 유가가 상승하면서 2008년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전년 동월 대비 12.4%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석유 수요 감소에 따른 유가 급락과 물가 상승 압력의 완화로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2008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3%를 기록하였음.
- 국내소비 감소 및 국제 상품가격 하락으로 2009년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년 이래 최저인 전년 동월 대비 0.1%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경기회복, 국내소비 및 국제 상품가격의 회복, 폐소화 가치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세로 돌아서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3%를 기록하였음.

#### □ 점진적인 경기부양책 중단 및 환율 강세 전망

-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은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2008년 11월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21%에서 19%로 인하하였으며,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200bp 인하한 이후,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현재 6%의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0년에는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하여 일부 경기부양책들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금리 인상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인한 수출 타격을 우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중 미 달러화 대비 폐소화 가치가 약 13.7% 하락한 이후(1월 1일 41.96페소/달러 → 12월 31일 47.69페소/달러), 2009년에 들어서서는 평균 47.68페소/미달러 수준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변동성을 보여 주었음. 2010년에는 경기회복, 아키노 대통령 당선,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 힘입어 폐소화 환율이 다소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 세수 감소 및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증가

- 필리핀은 세수기반 취약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나, 2002년 이후 정부의 긴축정책과 재정수지 적자 해소 노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점차 감소해 왔음.

-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 국영 통신회사의 민영화 등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07년 재정수지 적자는 10년 만에 최저인 GDP의 0.2%를 기록하였음. 2008년에는 식료품 지원 및 현금보조금 지급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정부지출은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수는 감소하여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0.9%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세율 인하 등에 따른 세수 감소, 민영화 자산 매각 부진 및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9%까지 확대되었으며, 2010년부터 경기부양 조치들이 점차 중단됨에 따라 공공지출이 감소하여 재정수지 적자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유류 등 연료에 대한 높은 수입비중

- 필리핀은 유류 등 연료에 대한 수입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의 상승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급등 및 경제성장률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필리핀의 하루 평균 원유 수입량은 2008년 기준으로 353,700배럴로 세계 29위 수준임.

#### □ 수출구조의 취약성

- 총 상품수출에서 전자제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이를 정도로 수출품목 다변화가 부족한 상황이며, 총 수출의 30% 이상이 미국과 일본 양국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구조적 취약성으로 지적되고 있음.
- \* 2008년 총 수출액의 16.9%를 미국, 16.4%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음.

#### □ 해외근로자 송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

- 상품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이 해외근로자 송금 덕분으로 필리핀 경제는 해외근로자 송금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음.
- \* 해외근로자 송금액: 132.6억 달러(2007년) → 145.4억 달러(2008년) → 151.4억 달러(2009년)

## □ 과중한 외채상환 부담

- 전반적으로 외채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GDP 대비 총 외채잔액은 높은 수준임.

\* GDP 대비 총 외채잔액(2009년 기준): 40.7%

## 나. 성장 잠재력

### □ 풍부한 노동력 등 성장 잠재력 보유

- 풍부한 광물자원, 인구 9,798만 명에 달하는 내수시장, 영어에 능통하고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노동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면 성장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일관성 부족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여 왔으며, 소득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매우 큰 상황임.

### □ 콜센터 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

- 필리핀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이 중 콜센터는 BPO의 핵심 산업임. 인도와 함께 전 세계 콜센터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100개가 넘는 기업에서 약 12만 명이 콜센터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필리핀은 영어에 능통한 노동력이 많아 콜센터 서비스 사업 유치에 유리하며, 정부가 콜센터 서비스 직원 전문 양성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 \* 필리핀 정부는 콜센터 육성을 위해 외국 투자기업에 설립 후 4~8년간 법인세 면제, 법인세 면제기간 종료 후 5% 세율 적용, 수입 자본재에 대한 세금 면제, 위탁장비의 제약 없는 사용, 외국인 고용 허가 등 여러 혜택을 주고 있음.

## 다. 정책성과

### □ 재정수지 적자 축소 노력

- 세수기반 부족 및 조세징수 제도 미비 등으로 2002년 재정수지가 GDP의 -5.4%에 달할 정도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아로요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재정수입의 증가 등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 개선 노력을 한 결과,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GDP의 -0.2%까지 축소 되었음.
- 그러나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및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다시 증가해 2009년에는 GDP의 -3.9%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 조세제도 개선 노력

- 2009년 초 필리핀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개인소득세 공제 확대, 최저 임금 근로자 소득세 면제, 법인세율 인하(35% → 30%), 개인퇴직연금 납부액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등 세제 완화 조치를 도입하였음.
- 한편,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투자에 대한 일부 재정적 인센티브 폐지, 알코올 및 담배제품 소비세에 대한 구조 조정,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비용 공제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0년 6월 아로요 대통령의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당분간 추가적인 세제 개편 및 경제구조 개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경 상 수 지	1,984	5,347	7,119	3,897	8,522
경상수지 / GDP	2.0	4.6	4.9	2.3	5.3
상 품 수 지	-7,773	-6,732	-8,391	-12,885	-8,878
수 출	40,263	46,526	49,512	48,253	37,510
수 입	48,036	53,258	57,903	61,138	46,388
외 환 보 유 액	15,926	20,025	30,211	33,193	37,879
총 외 채 잔 액	61,658	60,282	65,845	67,126	65,256
총외채잔액 / GDP	62.4	51.3	45.7	40.1	40.7
D. S. R.	16.0	18.9	13.0	14.9	16.5

자료: IFS, EIU

#### □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기록

- 필리핀의 상품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경기침체로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전자제품, 반도체 등의 수출이 부진했던 반면,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약 53.6% 증가한 12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 식료품 및 연료가격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 상품수지 적자가 88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 경상수지 흑자 지속

- 지속적인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이전수지 증가, 관광 및 BPO 부문의 호조로 인한 서비스수지 개선 등으로 경상수지는 흑자가 지속되어 2007년에는 7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서비스수지의 흑자 기록 및 소득수지의 흑자 전환(2007년 8.9억 적자 → 2008년 1.1억 흑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45.3% 감소한 3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상품수지 적자 감소, 서비스수지 및 이전수지의 흑자 지속으로 2009년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도 GDP의 2.3%에서 5.3%로 상승한 8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국제 상품가격 및 국내소비의 회복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 외채상환 부담은 다소 과중한 편이나 대외지급불능 발생 가능성은 낮음

- 2003년 이래 외채규모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며, 2009년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비중이 약 41%로 외채상환 부담은 다소 과중한 편으로 판단됨.
- 필리핀의 외채상환부담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D.S.R.이 2009년 16.5%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이 약 7개월분의 수입액을 기록하고 있음에 따라, 단기적으로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정상적인 채무상환

- 필리핀의 외채상환 부담은 큰 편이나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로 총외채잔액/총수출이 122.4%, D.S.R.은 16.5%로 전년보다 악화되었음.

### Ⅲ.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대통령 당선

- 2010년 5월 10일 선거에서 코라손 아키노(Corazon Aquino) 전 대통령의 아들인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Benigno Noynoy Aquino)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세계 정치사에서 최초로 모자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필리핀에서는 9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 아키노 상원의원은 2009년 8월초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전국적인 추모 열기에 힘입어 필리핀의 새 지도자로 급부상했으며, 동년 9월 자유당(Liberty Party: LP)의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어 청렴한 이미지로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 □ 아키노 당선자의 부패척결 및 경제정의 공약 추진이 어려울 전망

- 아키노 대통령 당선자가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정의를 공약으로 내세움에 따라, 현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 대통령 집권기간 중 발생한 부정부패 청산과 경제회복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아키노 당선자가 아직 뚜렷한 정치적 경력이 없고 아로요 대통령 집안과 같은 대지주 가문 출신임에 따라,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하원의원에 당선된 아로요 대통령이 세력을 결집하여 차기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 사회안정

#### □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 상존

-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국내 과격단체들에 의한 납치, 테러 및 무장충돌 등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불안 요인이 상존해 왔음. 민다나오섬의 회교 분리주의 세력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MILF), 루손섬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인 신인민군(New People's Army: NPA) 등이 대표적인 무장 과격단체임.
- 또한 고질적인 부정부패, 높은 실업률, 빈곤층의 불만 등으로 인해 대 정부 항의시위가 빈번히 발생해 왔으며, 정치적 문제로 인한 군중시위도 자주 발생하는 편으로 1986년 2월 마르코스 전 대통령, 2001년 1월 에스 트라다 전 대통령의 축출도 국민들에 의해 주도된 것임.

## □ 민다나오섬의 이슬람 반군과 평화협상 진행

- 필리핀 정부와 모로이슬람해방전선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중재 아래 40여 년에 걸친 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상안에 합의했으나, 가톨릭계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2008년 8월 대법원이 평화협상안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음. 이에 실망한 이슬람 반군들은 민다나오섬의 가톨릭 마을을 공격했고, 정부 역시 이에 무력 대응하며 이후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었음.
- \* 민다나오섬은 과거 이슬람인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필리핀의 영토가 되어 가톨릭 세력들이 이주해 오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음. 이로 인해 이슬람 세력들은 자치권을 주장하며 필리핀 정부와 투쟁을 계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12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음.
- 2009년 말 필리핀 정부와 모로이슬람해방전선 양측의 노력으로 평화협상이 재개되었으나, 아로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0년 6월말까지 사실상 임시 평화협정의 완결이 불가능하여 차기 정부로 평화협상이 넘어가게 되었으며, 차기 아키노 정부가 압도적인 승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화협상 진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여러 국가의 비정부기관에서 파견된 60여명의 국제감시팀(International Monitoring Team: IMT)이 이 지역의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지에서 온 감시요원들이 참여하여 인원이 더욱 보강될 것으로 예상됨.

## 3. 국제관계

### □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 노력

- 필리핀은 ASEAN의 설립 회원국으로서 여타 회원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과는 남중국해에 위치한 남사군도(Spratly Islands)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나, 양국간 급증하는 무역 및 투자에는 장애가 되지 않고 있음.
- 남사군도에 대해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국가들도 일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ASEAN을 중심으로 영유권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임.



- Moody's는 2009년 7월 필리핀이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경색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과 양호한 대외지급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필리핀에 대한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기존 B1에서 B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전액인수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단기 인수가능, 한도적용 없음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49년 3월 3일 (북한과는 2000년 7월 12일)
- 주요협정: 항공운수협정(1969년), 무역협정(1978년), 경제기술협력협정(1983년), 이종과세방지협약(1984년), 투자보장협정(1994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필리핀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4,420	5,016	4,567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판
수 입	2,438	3,099	2,652	반도체, 동제품, 곡실류
합 계	6,858	8,115	7,219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2010년 4월말 기준 필리핀 앞으로 총 7건, 848억 원의 EDCF 자금이 집행(8위 EDCF 수혜국)되는 등 경제협력 측면에서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필리핀과의 교역규모는 2007년 69억 달러, 2008년 81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72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대 필리핀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3월말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3,701건, 1,300백만 달러를 기록(투자누계 기준)하고 있음.

## VI. 종합 의견

- 필리핀은 2004년부터 4년 연속 5% 이상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가 지속되었으나, 2008년 주요 수출국의 수요 감소와 해외근로자 송금액 감소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8%로 둔화되었으며, 2009년에는 국내소비의 회복세 및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위축 완화 등으로 0.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소비수요 감소 및 국제 상품가격 하락으로 2008년 8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며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크게 하락한 약 3.3%를 기록하였으며,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2009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9%로 증가하였음.
- 2010년 5월 선거에서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상원의원이 어머니인 아키노 전 대통령의 후광과 청렴한 이미지에 힘입어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향후 선거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감소할 것이나, 향후 부패척결 및 경제정의 등 공약 실천에는 어려움이 예상됨.
- 2009년 말 필리핀 정부와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간의 평화협상이 재개되었으나, 아로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0년 6월말까지 사실상 임시 평화협정의 완결이 불가능하여 차기 정부로 평화협상이 넘어가게 되었으며, 차기 아키노 정부가 압도적인 승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화협상 진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지속적인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관광 및 BPO 부문의 호조에 힘입은 서비스수지 흑자와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꾸준한 유입 등으로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외채부담은 다소 과중한 편이나, 외환보유액 증가 및 외채관련 지표 개선 등을 감안할 때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 한 단기간 내에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책임연구원 백 승 주 (☎02-3779-6648)  
E-mail: [sjpaik@koreaexim.go.kr](mailto:sjpaik@koreaexim.go.kr)